

포항시, K-로봇 선도도시 밑그림 그린다... 국비 119억 확보

산업부 공모사업 2개 과제 선정
미래 신수요시장 창출 효과 기대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 총력

포항시가 차세대 신산업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K-로봇 글로벌 선도도시 포항, 로봇산업지도 그리기에 본격 나섰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과 협력해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국가 공모에서 '다품종 EV 폐배터리팩의 재활용을 위한 인간-로봇 협업 해체 작업 기술 개발사업'과 '와이어 로프, 삭륜 장치를 포함한 삭도시설 원격 검사 로봇 시스템 개발사업'의 2개 과제에 최종 선정돼 국비 1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차세대 로봇산업 성장의 핵심 키워드로 미래 신수요 시장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로봇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포항시 안전로봇실증센터 전경.

있다. '다품종 EV 폐배터리팩의 재활용을 위한 인간-로봇 협업 해체 작업 기술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76억 원(국비 69 지방비 7)에 달한다.

또한, 사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자동 평가센터 등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의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리튬이온전지 산업은 전기차 시장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기차(EV) 및 대

용량 전지저장장치(ESS)용 중·대형 전지시장은 용량기준 10년간('20~30년) 1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 관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이런 수요 급증에 따른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포항시는 2019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블루밸리국가산단 및 영일만산단 일대에 이차전지 핵심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다하고 있

다.

한편, '와이어 로프, 삭륜 장치를 포함한 삭도시설 원격 검사 로봇 시스템 개발'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55억 원(국비 50 지방비 5)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 삭도시설 자동검사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제품설계 및 개발을 위한 모델링, 성능평가 장비 3종 개발 ▲ 실시간 검사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제어를 위한 원격 관제시스템 개발, ▲ 삭도시설 검사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을 추진하며, 향후 포항해상케이블카를 삭도시설 검사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사업의 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삭도시설 관련 2021년 기준 시장규모는 국내 14,174억 원, 해외 349.1억달러로 현수교, 승강기 등의 시설에도 적용 가능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는 차세대 로봇산업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포항(경북)=오대승 기자
ods0822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양산나물축제' 오늘 개막

제17회 영양산나물축제가 5월 12일(목)부터 5월 15일(일)까지 4일간 영양군청, 영양전통시장 일원에서 대면축제로 개최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2019년 제15회를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축제가 취소되었으며, 2021년에는 온라인 위주의 축제가 개최되었다. 다시 사람들이 어울려 모이는 대면축제는 3년만이다.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예년에 비해 준비기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가 되었으나, 영양군과 (재)영양축제공관재단에서는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대면축제와 온라인축제 2가지 경우를 모두 사전에 준비해왔기에 대면축제가 개최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고창군립미술관 건립 속도 낸다

전북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술관 건립의 타당성 평가 등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최종심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되는데 고창군에서 2020년부터 준비해 3년여만에 결실을 얻게 됐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관광공사 '커피도시 부산' 추진 속도

부산관광공사는 5월부터 관광활성화를 위한 커피도시 부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사는 사업추진에 앞서 지난 2월 부산지역 카페 방문객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커피도시 부산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커피도시 부산 하면 '바닷가 경치(뷰)' 이미지가 연상된다는 의견이 21.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양한 카페거리 중 해운대와 서면이 가장 많이 연상되는 지역으로 밝혀졌다.

/부산=이도식 기자

영암군 '기찬들 영암물' 안드로이드·아이폰 앱 출시

영암군은 온라인 쇼핑몰인 '기찬들 영암물'을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에서 어플리케이션과 앱을 출시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및 IOS 앱스토어에서 기찬들 영암물 어플리케이션 및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다운받은 고객 전부에 대해 적립금 1,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영암(전남)=김용학 기자 jiaacecom@

김해시, 행안부 주관사업 선정

공공데이터 활용 일자리 확보

국비 11억, 26명 청년 일자리 마련
기업과 협업... 공공데이터 발굴

김해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1억 원과 26명 청년 일자리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기업이 협업해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품질 향상에 청년인턴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안전한 교통문화 지원을 위해 도로안전표지, 과속방지턱의 표준데이터 구축 ▲소상공인 자립과 정책 지원을 위한 업종별 창·폐업 현황 및 생존율 공공데이터 개발 ▲지속 가능한 맞춤형 통계지수기반의 도시프로파일링 개방서비스 구축 등 3건의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제가 선정돼 사업비 11억 원과 26명의 청년인턴을 지원

받아 이달 중으로 매칭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사업 추진 후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공공데이터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AI기반 대형폐기물 학습데이터 구축', '과학적 공공하수처리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구축' 등의 과제로 3년 연속 공공데이터 분야 행안부 공모에 선정됐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데이터 분야 업무 경험 및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해 4차 산업시대 핵심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데이터와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광주시,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추진

문체부 선정... 국비 2.7억 확보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2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마이스 전담 조직인 광주관광재단과 국제회의시설 운영 주체인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총 4차례 사업 발굴 회의를 거쳐 8개 사업을 발굴하고 3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국제회의하기 좋은 도시 홍보를 위한 국내외 마이스 매체 대상 홍보 사업 지역 내 마이스 인재 육성을 위한 광주 마이스 사관학교 운영 국제표준화기구 MIC

E 적합기준 인증 획득을 위한 전문회의시설 및 집적시설 ISO 20121 인증 획득 사업 참가객 편의성 증진 위한 키오스크 설치 사업 등으로 시비를 포함해 사업비 총 5억 4000만 원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년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무지구의 또 다른 이름 '국제회의하기 좋은 공간' 광주 마이스 파크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고 국내외의 마이스 도시로의 광주시 홍보활동을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 광주시 관광인프라를 연계하는 정보제공 플랫폼 광주마이스 파크 앱 및 홈페이지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돌아온 '기장멸치축제'... 20일 개최

전국 최초 수산물 먹거리 축제

부산 기장군과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제26회 기장멸치축제'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기장을 대변할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기장멸치축제는 지난 1997년 시작한 전국 최초의 수산물 먹거리 축제로, 명실상부한 기장을 대표하는 전국 축제로 발돋움해 해마다 진행돼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년째 개최가 취소된 바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체에 발맞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년 만에 기장멸치축제 개최가



결정됐다.

이번 축제는 제철 맞은 멸치의 활기와 바다의 싱그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곡성군,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선정

목표 달성률 98.6% 기록

곡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도 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정부합동평가는 지자체의 정책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공통사무에 대한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5대 국정 목표 10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정량지표는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 정성 지표는 지표별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곡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정량지표 73개 중 72개를 달성해 목표 달성률 98.6%를 기록했다.

일반행정, 복지, 경제, 보건 등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관련된 19개 정량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곡성(전남)=김태수 기자